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44)(3/19/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1 장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멸시함, 1-2 절

시 25:15-16 -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16.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 57:1-2 - 1.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1. <제자> 나의 주여, 내가 사람이나 그 밖의 다른 모든 피조물이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내게는 주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나는 주께로 훨훨 날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훨훨 날아서 주께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어떤 사람은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시 55:6)라고 탄식하여 말하였습니다. 순전한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더 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마 6:22),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멸시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서 초연한 가운데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비견될 수 있는 피조물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벗어나서 얽매임 없이 초연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제대로 착념할 수 없습니다. 깊은 묵상에 들어간 사람이 드문 이유는, 잠시 후면 덧없이 사라질 피조물들로부터 벗어나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2. 영혼이 고양되어서 그 자신을 초월하려면,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고양되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무한히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높이고 숭양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 땅에서 미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빛을 받아 깨달음을 얻은 경건한 사람의 “지혜”와 열심히 연구해서 많은 학식을 쌓은 학자의 “지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화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여된 지식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은 지식보다 훨씬 더 고귀합니다.

말씀과 해설:

성경은 우리가 영성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과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한다. 그것은 예배, 찬양, 기도, 묵상, 사랑과 선행의 실천과 섬김 등,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사람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것은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모습이다. 야고보 사도는 특히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다. **약 2:26 -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실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것이며,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어 버린다면, 우리의 실천과 행위는 우리 공로로 여겨지며, 결국 공로주의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꾸지람을 들은 이유 중의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그 행위를 자랑하며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서로 연결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셨다. 요 5:24 과 요 20:31 은 복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요 5:2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20:31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요 14:15, 21 -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계승하여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였다. 롬 1:17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베드로도 벵전 1:9 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선포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행위 구원 사상을 가르치는 당시 로마가톨릭교회의 교리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루터를 필두로 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을 강조하며, ‘오직 믿음(sola fide)’을 외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인간 안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 요소, 능력이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롬 3:24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엡 2:8-9 -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한 은혜의 원리는 우리의 구원에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된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1:15 -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은혜를 받아야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시 25:15-16 -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16.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다. 고전 15:10 -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은혜는 특히 우리의 영성생활의 근간이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찬양할 수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도 없다. 은혜를 잃은 신앙생활,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영성생활,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교회생활은 금세 활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신앙의 삶은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시 57:1-2 - 1.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변함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소생하는 우리 교회, 가정,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2.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과 세계 그 어느 곳 보다도 가난한 아프리카를 비롯한 극빈 지역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정치, 경제, 사상, 종교적 억압 속에 고통 당하는 이 땅의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